

공중위생·마취·엑스선·백신·항생제·DNA·대체의학

세월의 시험을 이겨낸 의학적 혁신들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다’ 존 퀘이조 지음

#. “환자 머리 위에 나무로 된 통을 씌워라. 그 통을 아몬드가 부서질 만큼 세게, 하지만 두개골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두들려서 환자를 기절시켜라.” 고대 마취 처방 중 하나로, 섬뜩하다. 목을 잘라 환자를 죽이지 않고 무의식 상태까지 질식사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마취법은 1600년대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다. 오죽했으면 19세기 중반까지 환자들의 외과 의사 선택 기준은 ‘얼마나 빨리 수술을 끝내느냐’였다.



#. 공중목욕탕 손잡이나 수도꼭지를 잡기 전, 낯선 사람과 악수하기 전, 콧만 비스나 엘리베이터, 비행기에서 답답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혹시 나쁜 세균이 감염되지 않을까 한번쯤 생각해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 해도 손씻는 것만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다’는 오늘날 일궈낸 의학계의 혁신적 발견들을 꼼꼼하게 전한다. 미국 과학·의학 전문 저술가 존 퀘이조는 수많은 의학적 발견 중 ▲히포크라테스와 의학의 탄생 ▲공중위생의 발전 ▲보이지 않는 침입자,

세균 ▲마취 ▲엑스선 ▲백신 ▲항생제 ▲정신 질환치료제 ▲유전과 DNA ▲대체의학 등 10가지를 ‘혁신적’ 발견이라고 꼽았다.

목표대로라면 MRI의 발견이나 장기 이식, 성형수술, 아스피린 등 수많은 의학적 발견은 제외했다. 어떤 기준에 따라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저자는 영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도킨스 통해 추천받은 ‘가장 위대한 의학적 혁신’과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료로 파악한 공중보건 10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켰는지와 의학 발전을 가져왔는지 여부, 기존 세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는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골랐다고 적시했다.

책이 다루는 주제만 놓고 보면 지금껏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책들과 비슷하다. 다만, 눈부신 의학적 발견을 성취한 인물에 집중하는 대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겪었던 험난하고 우여곡절로 가득 찬 과정을 꼼꼼하게 담아내고 있는 점은 기존 책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마취 기술의 발달을 소개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느 책들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의학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도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두려워 하는 게 마취다. 수술중에 깨어나지 않을까,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의사를 붙잡고 이것저것 캐묻는 게 무척

많다. 하물며 ‘잘 듣지 않을 수 있고 환자를 죽일 수도 있고 급기야 돌아갈 수 있는’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저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 마취법이 발전하기 전의 체험을 담은, 영국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지인인 프랜시스 버니의 편지 내용을 전하며 환자의 수술에 대한 공포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의학의 암흑기 마취 기술을 비롯해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의 성질을 관찰한 험프리 데이비, 타월에 에테르를 흠뻑 묻힌 뒤 환자가 호흡을 하면서 냄새를 맡도록 한 뒤 종기 제거 수술을 한 크로퍼드 롱, 에테르를 활용해 무통 분만을 시도했던 제임스 영 심슨 등 다양한 인물들의 노력을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파티에서 환각제 용도로 쓰였던 에테르와 에테르보다 효과가 좋은 ‘클로로포름’ 발견 과정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전학도 흔히 떠올리는 멘델 외에 세포핵의 중요성을 주장한 에른스트 헤켈,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설명한 발터 플레밍, 뉴클레인(지금의 DNA)의 존재를 입증한 프리드리히 미셔 등의 노력을 담아내고 있다.

한가지 발견을 위해 수많은 인물이 진행했던 끈질긴 노력을 자세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책장을 덮고 난 뒤 기분 좋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 한몫을 한다.

〈메디치·1만65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칙과 상식이 파괴된 대한민국 법 ‘불편한 진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박영규·류여해 지음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법이 많다. 법 체계가 잘못된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더 큰 원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때때로 법의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규 경기대 법대 교수는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라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류여해 한국사법연구원 교수와 공동으로 낸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는가”, “법을 사업으로 만든 이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법에서 금을 깨는 사람들”, “금융범죄에 면역이 되어버린 사법부” 등 소재목도 심상치않다. 물론, 책장을 넘길수록 ‘긴장감’은 한층 강해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회 법제실을 거쳐 한국사법연구원 교수로 있는 류 교수의 경험을 토대로 중심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사실적이다.

악법도 법이 되는 사회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해치는 법을 따지는가 하면, ‘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며 위험한(?) 발상도 설득력 있게 내놓는다.

저자들은 책에서 법이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이익을 끼치는 지와 부실한 입법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을 ‘사유화’하고 있는 지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비판한다. 〈꿀벌·1만3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술이 현실을 뛰어넘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작가를 부르는 미술관’

셀린 들라보 지음

통일신라시대 화가 솔거(率居)가 황룡사 벽에 ‘노승도(老僧圖)’를 그렸더니, 새들이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문학박사인 셀린 들라보가 쓴 ‘작가를 부르는 미술관’도 비슷하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는데, 60여점의 작품 모두가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놀랍고 재미있다.

에드가 뮐러가 아크릴 물감으로 수백m의 땅바닥을 크레타스(빙하의 갈라진 틈)로 완벽하게 바꾼 것은 ‘스트리트페인팅’, 작품 안으로 들어가면 눈앞이 빙빙 돌 정도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야요이 쿠사마의 ‘점에 대한 강박’, 박제된 말을 미술관 전시실 벽에 처박듯 꽂아놓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무제’,



몸에 추를 달고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보철구를 이용해 절벽에 매달리는 필립 라메트의 작품 등 미술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눈을 속이다’, ‘또 다른 의미를 담아내다’, ‘형체를 만들다’, ‘시각을 탐구하다’, ‘현실을 초월하다’ 등으로 나눠 다양한 작가의 작품과 배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넘기다보면 착시와 환상은 미술이 현실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게 했었다는 저자가 쓴 서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난해한, 어려운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팁을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은 덤이다.

〈시그마북스·2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죽은자들 세계에서 돌아온 남자, 운명의 미스터리

‘천국의 수인’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지음

소설 ‘바람의 그림자’(1·2)는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가 어렵다. ‘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터리 세계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달리게 만든다.

‘바람의 그림자’의 저자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새로운 장편 소설 ‘천국의 수인’이 나왔다.

이번 소설의 화자는 ‘바람의 그림자’에도 등장했던 다니엘이다. 꼬마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잊힌 책들의 묘지’에 들어섰던 그는 결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간다.

어느날, 다리가 불편한 한 노인이 ‘몽테카리토박자’의 고가 판본을 구입한 후 책 첫 표지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아 돌아와 미래의 열쇠를 쥐게 된 남자-페르민 로메로 데 토레스에게’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면서 흥미로운 스토리가 전개된다. 다니엘은 서점에서 함께 일하는 페르민에게 책을 보여주고 페르민은 다니엘의 인생을 뒤바꿔놓을 이야기를 이야기해 털어놓는다.

소설은 1957년 12월의 바르셀로나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1939년 몬주의 교도소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팽팽하게 전개된다. 몬주의 교도소에 수감된 페르민과 ‘천국의 수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작가 다비드 마르틴은 친구가 되고, 두 사람은 탈옥을 계획하는데..

‘바람의 그림자’ 이후 출간됐던 ‘천사의 게임’까지 함께 읽으면 더 흥미롭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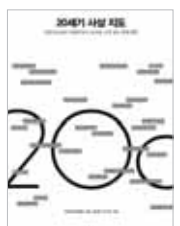
현대사상 뿌리 20세기 사상가들

‘20세기 사상지도’

민승기 외 지음

20세기 사상의 거두 27명을 한 데 모은 철학 입문서. 기존 철학 입문서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익숙하게 알려진 사상가 뿐 아니라 생소한 사상가까지 다양하게 담아낸 ‘사상지도’다.

‘20세기 사상지도’는 인문학운동 공동체인 ‘대안연구공동체’가 기획하고 김동수 대안연구공동체 파이데이아 연구위원, 민승기 경희대 후마니



타스 칼리지 객원교수와 변공배 인문학연구소 시즈프 대표 등 12명이 참여했다. 현대 사상의 뿌리가 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소쉬르를 살펴보고 ‘인식과 관념’, ‘아트 혁명, 노동과 여가’, ‘자아, 주제, 사회’, ‘욕망의 꽃, 윤리’ 등 4가지 주제에 따라 23명의 사상가들을 묶어 소개하고 있다.

〈부키·1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흥미진진 궁금했던 영어의 어원

‘교양 영어 사전’

강준만 지음

앞을 단추나 지퍼로 채우는 가디건(cardigan)은 어디서 유래한 말일까. 미국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Uncle Sam’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온 강준만 전복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교양 영어 사전’을 펴냈다.

800페이지가 넘는 광대한 분량인



이번 책은 501개의 단어와 속어를 통해 궁금했던 영어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지명 유래, 고유명사, 신조어, 슬랭, 상업적 브랜드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꼼꼼하게 영어의 ‘뿌리 찾기’를 시도했다. 영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시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숨은 상식 등을 덩어리 얻을 수 있다. 〈인물과 사상사·3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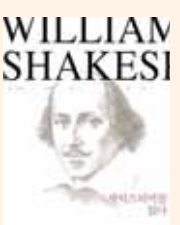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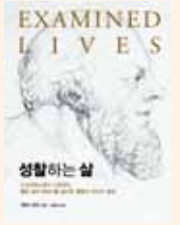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성찰하는 삶=서양 문명사의 대표적 철학자 12명의 생애를 통해 ‘삶의 방법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유래와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를 비롯, 플라톤·디오게네스·아리스토텔레스·세네카·아우구스티누스·몽테뉴·데카르트·루소·칸트·에머슨·니체 등이 철학을 어떻게 삶의 방법으로서 실천했는지 찬찬히 뜯어본다. 〈현암사·2만2000원〉

▲초콜릿 탐욕을 쫓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인 오를라 라이언이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취재한 초콜릿 생산자와 구매자, 기업과 정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초콜릿 생산에 얽힌 어두운 뒷면과 부패한 정치가 어떻게 농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는지,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이 왜 생겨났는지도 규명하고 있다. 〈경계·1만5000원〉

▲잡지, 시대를 철하다=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의 옛 잡지와 신문으로 당대 시대상을 들여다본다. 일제시대 대표적 대중잡지인 ‘개벽’부터 별건국, 삼천리, 신흥, 비판, 새한민보, 혁명, 좌익신문 현대일보, 그리고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까지 살살이 뒤져 기사를 수집하고 시대와 인물에 따라 주제별로 나눠 근현대사를 다시 읽어내고 있다. 〈돌베개·1만7000원〉



▲옛글에서 다시 찾는 사람의 향기=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선비들이 남긴 39편의 글을 뽑아 이해하기 쉽게 옮겨놓았다. 고전을 통해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글들을 정성스럽게 엮어내면서, 25년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저자의 생각을 담았다. 고려말 대표적 지식인 이색, 조선 개국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 한말 우국지사 최익현과 독립운동가 신채호 등의 명문을 한 자리에 천천히 음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나무생각·1만3800원〉

▲달토기 서울을 그리다=만화가 박재동·이희재·김정기·김광성, 건축가 임형남씨 등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드로잉 모임 ‘달토기’ 멤버 21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본 서울을 담아낸 이야기 화집. 그림꾼들 담겨 그림을 크게 배치하면서 각 작품마다 짧은 사연을 엮어냈고 쉬운 설명도 곁들였다. 일반인들도 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성인당·1만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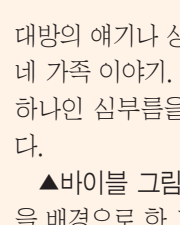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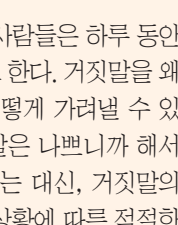
▲셰익스피어를 읽다=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비극적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을 엮은 책. 영어 원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능통한 언어 사용 능력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지만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욕망·분노·시기·사랑 등 인간의 적나라한 감정을 접할 수 있다. 〈오늘의 책·1만6000원〉



▲WHAT? 키즈사이언스 물·갯벌·흙=4~6세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과학책 시리즈로, 한 주제를 선정해 동화·백과·놀이·과학으로 접하게 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물·갯벌·흙 등 세 편이 함께 출간됐고, 나무·풍·우리 몸·천적과 공생·새야 등도 출간할 예정이다. 〈왓스북·각권 1만2000원〉

▲난 거짓말 절대 안해=사람들은 하루 동안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거짓말을 왜 하는지, 꼭 나쁜 것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거짓말은 나쁘니까 해서 안된다는 충고만 담아내는 대신, 거짓말의 심체를 제대로 알려주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법을 제시해준다. 〈다산기획·1만1000원〉

▲만지지 마, 내거야=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그림책이다. ‘친구 때문에 화났어, 친구가 나하고만 안돌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문득 내뱉는 말을 듣는 부모는 걱



정이 앞선다. 감정 상한 아이를 달래는 쥐야 하는데, 무조건 친구 잘못만 들춰낼 수도 없는 노릇. 아이들이 쉽게 겪는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쉽게 그렸다. 〈휴먼어린이·1만2000원〉

▲왜 나만 시켜! =아침이면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느라 가족들, 습 들릴 법 없이 바쁘게 돌아오는 일상 생활 속에 지쳐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상

대방의 얘기나 상황에는 별 관심이 없는 벌이네 가족 이야기. 가족 중 막내가 겪는 불안 중 하나인 심부름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려냈다. 〈노란돼지·1만1000원〉

▲바이블 그림 탐정=직접 탐정이 돼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 속에서 주어진 사람이나 사물 등을 찾아내는 그림 속 보물찾기 놀이 책으로, 성경에서 뽑아낸 17개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꼼꼼한 그림과 함께 엮었다. 책장을 크게 채운 그림 테두리를 따라 작은 그림들을 걸고 있고 나름의 소개와 이야기도 함께 풀어냈다. 〈베기북스·1만1500원〉

어린이 책꽂이